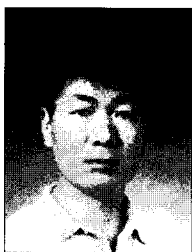


소 건강의 꼼꼼한 체크가 기반이 된 사료급여로 2012년을 낙농산업확장의 계기로 삼자!



박정희
천하제일사로 낙농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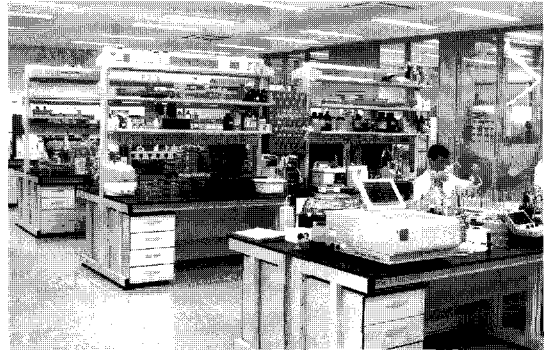
2011년 대한민국 낙농은 FMD 발병으로 3만6천두가 매몰 처리되는 고통과 인공수정 지연, 각종 소모성 질병의 만연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계속되는 사료값, 조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적자 경영이 지속되었다. 이에 감당하기 힘든 낙농가들이 대정부, 유업체와 유대 현실화 투쟁을 통한 유대 인상을 실현하여 그나마 함 숨 돌린 상태에서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1년 낙농 산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려움으로 시작하여 그나마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동안 낙농산업의 규모는 매년 감소하여 왔다.

구분	2008.06	2009.06	2010.06	2011.06	증감율
총사육두수	445,213	439,191	431,928	402,528	-10%
경산우두수	252,233	247,859	243,785	230,480	-9%
착유우두수	214,338	210,112	207,857	195,842	-9%
낙농가수	7,219	6,874	6,428	6,123	-15%

위 표에서 보듯이 3년 전 대비 사육두수 10% 감소, 낙농가수 15% 감소라는 극단적인 감소 현상을 보여 왔다. 우유부족 현상과 쿼터 초과 우유에 대한 정상 유대 지급은 어찌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FMD로 인하여 시일이 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이런 감소세를 보이는 식량 산업은 반드시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심각한 수급문제를 만들게 되어있다. 올해는 우유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연관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처음으로 겪은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는 낙농산업이 최저점을 찍고 다시 성장하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져야 한다. 물론

FTA로 인한 수입 유제품이 늘어나겠지만, 시유 시장을 지키고 하나의 산업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더 이상의 규모 감소는 전체 낙농 산업 붕괴를 초래 할 수 있다. 지금도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은 젖소를 치료하는 수의사가 부족하고, 낙농 기자재를 서비스 받기가 어렵다.



이제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낙농산업 종사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서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우리목장의 소는 건강한가?’ 를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사육두수가 증가 추세이고 도태가 지연되면서 소모성 질병 만연, 번식 지연, 유생산성 감소를 호소하는 목장수가 증가하였다. 현재는 유량을 늘리면 목장 수익성은 상당히 개선되는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유량을 기대치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상당한 이유는 우리 목장의 소가 건강하지 못해서라고 보인다.

참고로 당사에서 10만두 이상을 실시한 젖소 혈액을 통한 젖소 건강 테스트 (MPT : Metabolic Profile Test)를 연도별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젖소 건강 상태를 추정하고자 한다. 여러 항목을 검사하였지만 지면 관계상 의미가 큰 2가지(헤마토크리트, 글로부린)만 살펴 보고자 한다.

연도	채혈두수	헤마토크리트			글로부린		
		부족	정상	과다	부족	정상	과다
2006년	4,419	7%	60%	33%	23%	66%	11%
2007년	4,768	10%	61%	29%	21%	66%	13%
2008년	3,419	14%	65%	21%	17%	66%	17%
2009년	4,848	23%	64%	13%	18%	68%	15%
2010년	2,801	36%	57%	7%	12%	67%	21%
2011년 상반기	1,475	24%	69%	7%	7%	71%	22%

헤마토크리트(HEMATOCRIT)는 부족하면 빈혈증상이 있다고 추정하고, 과다는 음수 부족 현상을 나타낸다고 판정한다. 표에서 보듯이 헤마토크리트

부족이 2008년을 기점으로 그 전년도 10%에서 14%, 23%, 36%로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젖소가 빈혈증세를 보이는 것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혈은 기생충 감염, 영양 부족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정기적인 구충제 투여와 양질의 사료를 급여하여 영양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헤마토크리트 과다(음수부족)을 나타내는 수치는 2008년을 기점으로 21%, 13%, 7%로 점점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고능력우가 음수부족 증상을 더 느낀다고 가정을 해보면 고능력우가 줄었다고 보거나, 전체적인 유량감소로 필요 음수량이 적어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글로부린 수치 과다는 염증성 질병(예: 유방염, 부제병, 자궁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염증성 질병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소모성 질병으로 2010년 이후 염증성 질병이 20%대로 늘어난 것을 보면, 우리 목장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소모성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 또한 최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장의 노력을 방해하는 한 가지 의미 있는 수치로 보여진다.

2008년은 곡물가 인상으로 사료값과 조사료값의 폭등이 있었던 해다. 이 때를 기점으로 빈혈이 늘어나고, 소모성 질병이 늘어났다는 것을 위의 표가 보여 준다. 즉, 2008년 이후 사료비를 아껴야 하는 목장의 현실에 영양 부족을 나타낸 소가 늘어났고, 여기에 면역력까지 떨어져 소모성 질병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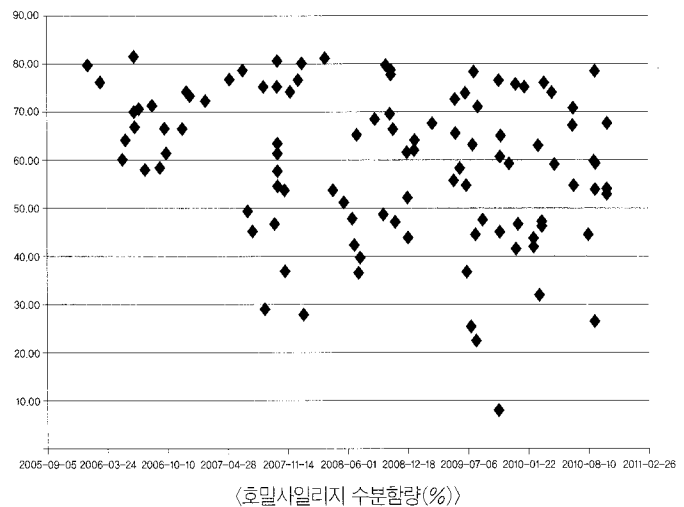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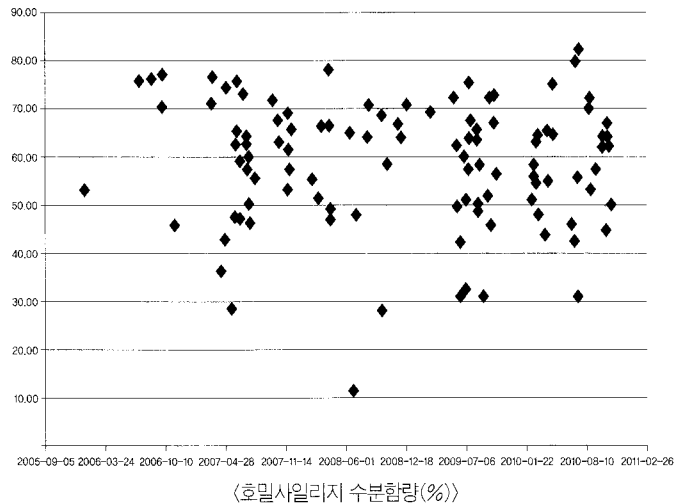
“소의 건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서로 간 전염을 최소화하며, 육성우·건유우·착유우 전부 세심한 사료급여로 건강한 소사육이 절실한 때...”

최근 우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목장은 여러가지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시도 전 먼저 우리목장 소가 건강한지 꼼꼼하게 체크 할 필요가 있다. 체크 후 각 개체별 치료와 도태를 결정하여 서로 간 전염을 최소화한 건강한 목장을 만들어야 한다. 사료값을 아끼려고 영양부족을 야기하면 목장의 손해가 심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육성우, 건유우, 착유우 모두 세심한 사료 급여로 건강하면서 유량을 많이 내는 소를 만들어야 한다.

2011년 올해는 조사료가 부족하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 정부는 매년 수입 조사료 쿼터를 줄이고 있으며, 내년에도 조사료 쿼터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국산 조사료 사용 비율을 올리기 위하여 정부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만,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여 사용에 애로점이 많다. 아래 그림은 당사 연구소에 분석 의뢰된 국내 조사료 수분 차이를 보여준다. 보통 40 ~ 80%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정도로 다양한 수분 차이는 동일 조사료로 보기 어

려우며, 급여 수준 결정에 혼선을 주는 일이 많아진다. 수분 차이로 인한 건물섭취량 변동은 젖소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산성 저하를 일으킨다.

내년에도 수입 조사료 가격 인상과 구입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에도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양질의 건초를 싸게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장들은 조사료 자급의 기틀을 마련하고, 좋은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료 작물포를 확보하고 좋은 국산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익 향상의 길로 보여진다. 또한 국산 조사료는 수분함량을 꼭 체크하여 급여량을 결정하기 바란다.



2012년의 낙농 여건도 그리 만만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곡물가와 건초 수입가는 계속 오를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은 더디기만 하다. 그러나 이제 유량 쿼터 제한도 유보된 현 시기에 마음껏 유량을 늘려 수익을 최대화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젖소를 만들고 세심한 급여 관리와 꼼꼼한 번식 기록관리 등 남보다 앞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적인 관리 노력을 해야 한다. 소는 정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낙농 생산성이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 다시 생산성 향상의 길로 되돌려야 한다. 2011년 대한민국 낙농 산업은 ‘확장할 것인가? 더욱 축소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진다. 목장의 수익성 향상의 돌파구를 빨리 찾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